

【특집: 사료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전망】

장·단기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 전망



이 명 속

코리아PDS 물기분석팀
연구원

1. 2010년 상반기 곡물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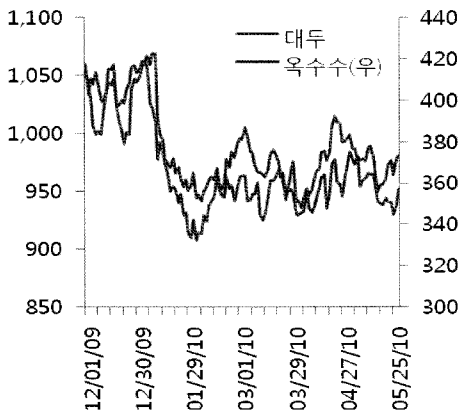
지난 해 말부터 올 해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며 곡물 가격은 1월 초순까지는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현지시간 1월 12일 올해 처음 발표된 미 농무부의 월간 수급전망보고서(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에서 올해 곡물 수급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

치가 수정되면서 농산물 가격은 급락했다. 더불어 이 시기 유로 대비 미 달러화 환율이 하락(달러 강세)하였던 점 역시 해외 투자자들에게 곡물 가격이 상승한 효과를 가져오면서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

이후 곡물 가격은 대두의 경우 부셸당 9달러 선에서, 옥수수는 부셸당 3.5달러~4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지루한 박스권 장세를 연출했다.

CBOT 대두 및 옥수수 가격 추이

단위: 센트/부셸



유로 대비 달러화 환율 추이

단위: 달러/유로



자료: 코리아PDS

곡물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인 이유 중 하나는 올 봄 대두 및 옥수수의 수출 2, 3위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수확이 시작되면서 수급이 더욱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두 국가의 대두 및 옥수수 수출량은 각각 전세계 수출량의 약 45%와 23%를 차지한다. 지난 2009년 초 이들 지역에서는 대두 및 옥수수 성장기에 불어 닥친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했었다. 그러나 올 봄 이들 지역의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하여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산량 전망치는 올해 들어 끊임없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올해 두 국가의 합계 대두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약 36%(3,200만 톤), 옥수수는 약 12%(8백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미 지역의 작황 호조가 이들 작물 가격에 악재로 작용하며 상승을 제한하였다.

또한 현재 파종 및 발아가 진행 중인 미국에서는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올해 작황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가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옥수수는 올 봄 파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 농무부의 작황 보고서에 따르면 5월 23일 까지 미국 주요 18개 옥수수 재배 지역에서 파종은 93%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80% 및 5년 평균치 89% 보다 빠른 수준이다. 발아 역시 71%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며 지난해 같은 시기 50% 및 5년 평균치 62%와 비교해 빠른 진행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수급(공급) 요인이 곡물 가격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투기(투자)·거시경제적 측면 역시 곡물 가격 약세에 일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투기(투자)적 측면에선 현지시간 4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골드만 삭스를 사기혐의(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채담보부증권(CDO)에 대한 주요 정보를 누락 혹은 잘못 공지)로 피소한 것이 곡물가격 회복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골드만 사건으로 미 증시는 해당일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 원당, 금, 유가, 비철금속 등 가격역시 해당일(현지시간 16일) 내림세를 나타냈다. 특히 국제유가는 2월 초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원당은 5% 이상 급락했다. 곡물 시장은 이보다 1거래일 늦은 4월 19일에 하락세를 나타냈고, 그 이후에도 투자 심리 위축으로 투자자들의 매수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시경제 측면에선 이미오래 전부터 불거져 나오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혹은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를 위시한 유럽 일부 국가들의 국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이에 유로 대비 달러화 환율은 더욱 강세를 나타내면서 곡물 가격에 악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곡물 가격이 이미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 추가 하락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고 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변동하는 데 그쳤다. 현재 대두 및 옥수수 가격은 올해 들어 최저 가격 수준인 지난 2월 초 가격 수준을 지지선으로 하여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 2010년 하반기 곡물 시장 전망

10/11 시즌에는 09/10시즌과 마찬가지로 곡물 수급은 생산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모습이 예상되고 있어, 수급(공급) 요인은 상반기에 이어 가격 회복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농무부(USDA)에서 지난 5월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10/11시즌 대두 생산량은 2억 5,013만 톤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 09/10시즌 생산량 추정치인 2억 5,800만 톤보다는 소폭 적은 수준이지만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세계 소비 역시 2억 4,634만 톤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09/10시즌으로부터 이월된 재고량이 높은 수준이라 10/11시즌 기말재고량은 더욱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수준(6,609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10/11시즌(2010년 9월~2011년 8월) 대두 생산량 역시 9,008만 톤으로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기말재고량은 지난 06/07시즌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옥수수 역시 10/11시즌 수급상황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세계 옥수

수 생산량은 8억 3,503만 3천 톤으로 지난 시즌보다 더욱 늘어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 역시 지난 시즌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07/08시즌 이래 꾸준히 생산이 소비를 압도 하면서 기말재고량은 1억 5,421만 톤으로 지난 00/01시즌 이후 10년래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두와 옥수수 생산 및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에서는 현재 옥수수 파종은 거의 완료 단계이며 대두 파종이 한창이다. 올 봄 미국 내 주요 옥수수 및 대두 재배 지역인 미드웨스트(Midwest) 지역에서는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옥수수 파종은 지난 해 및 5년 평균 수준보다 빠른 모습을 보였고 대두는 5년 평균과 비슷하게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날씨가 호조를 보이면서 작물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올해 미국의 대두 및 옥수수 생산량은 현재의 전망치 수준보다 더욱 증가하면서 수급을 완화시킬 여지가 있어 가격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근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생돈, 생우 등 육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곡물 가격 강세 요

전세계 수급 전망치

단위: 1,000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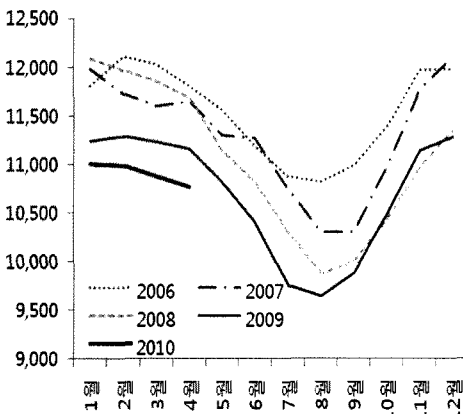
시즌	대두			옥수수		
	09/10	10/11	증감률	09/10	10/11	증감률
기초재고	43,035	63,761	48.2%	147,354	147,044	-0.2%
생산	258,002	250,134	-3.0%	808,569	835,033	3.3%
소비	235,114	246,346	4.8%	804,422	825,464	2.6%
기말재고	63,761	66,086	3.6%	147,044	154,210	4.9%

자료: USDA, 코리아PDS

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경제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면서 육류 소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지난 2008년 육류 가격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미 축산 농가들이 가축 사육 두수를 감소시키면서 비육우 두수는 최근 몇 년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육류 가격은 당분간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육류 시장 상황은 축산 농가들이 다시 가축 사육 두수를 늘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사육 두수 증가는 곡물의 사료 수요를 증가시키며 이는 곧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월별 美 비육우 두수 추이 비교

단위: 1,000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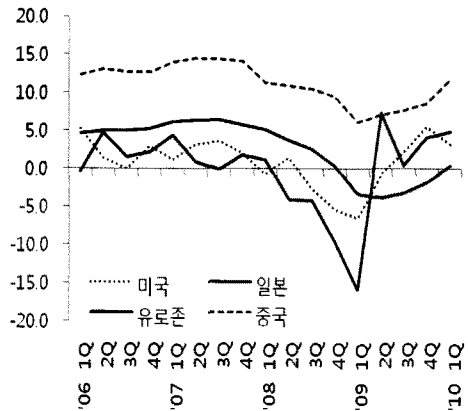
자료: USDA, 코리아PDS

한편 현재 전세계 경제 상황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이 강력한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지표역시 시장 전망보다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 긍정적이다. 최근 디플레이션 압박이 가중되

었던 일본경제 역시 견고한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하반기에도 전세계 경기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어지면서 곡물 가격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YoY



자료: 미 FRB, Eurostat, 일본 내각부, 중국 NSB, 코리아PDS

이러한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경제에 우려되는 몇 가지 요소 역시 상존하고 있다.

먼저 올해 본격화된 그리스발 국채 위기가 나머지 PIIGS 국가(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및 다른지역 국가들로 전염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스발 국채 위기는 지난 5월 중순 유럽연합(EU)이 그리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IMF와 함께 별도로 유럽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외견상으로는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아일랜드가 14.3%로 가장 높고 그리스, 영국, 스

페인 등 역시 10%가 넘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GDP 대비 국채 비율도 이탈리아가 115.8%로 그리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모습이다. 게다가 그리스발 국채위기가 다른 국가들로 전염되었을 경우 각국 정부가 서브프라임 위기 때처럼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고갈되어 있다는 점도 하반기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가지 하반기 경제에 대한 우려 요인은 주요국들의 금융규제안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소위 Dodd 법안이라고 불리는 금융규제안이 상원을 통과하여 이미 하원을 통과한 안과의 합의안 도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독일의 메르켈총리가 201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국채 및 주식에 대한 공매도(naked short-selling)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다른 유로존 국가에도 이번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금융 규제 조치는 하반기 주식, 원자재 등 금융시장의 유동성 유입 감소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하반기 경제 및 원자재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현재 옥수수과 대두 생산 및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의 작황 상황이 우수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공급 측면으로는 장기적으로 곡물(옥수수, 대두) 가격이 급등할 여지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을 앞세운 전세계 경기 회복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곡물 수요 증가 및 투자 자금 유입을 꺾이면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곡물 가격은 점진적 소폭 상승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상에서 지적한 몇 가지 경제에 대한 우려 요인이 곡물 가격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곡물 가격은 현 가격 수준에서 박스권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에 방향성을 제시할 뚜렷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는 미국의 대두 및 옥수수 재배 시기로 일기 예보가 곡물 가격 변동에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재고 수준이 높다는 점 역시 꾸준히 곡물 가격을 압박하고 있지만, 현 가격 수준이 이미 낮은 상태라는 점이 추가 하락을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중국의 대두 수입이 향후 2~3개월 동안에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옥수수 역시 최근 중국 국내가 상승으로 단기적으로 수입에 나서고 있는 점이 가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